



[산업]
최정우 포스코 회장
취임 100일 맞아
개혁안 발표
06

[유통]
하이트진로
성공현지시장
입점 확대 박차



L1

출판 6조·게임 4조·만화 3.9조…

경기 콘텐츠 산업 매출 20兆 돌파

11개 분야 2351개 기업 대상 실태조사
경기북부·고양서 출판, 성남서 게임

2016년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매출 규모가 20조를 넘으며, 세부 분류별로는 출판 산업이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경기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경기도와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은 2008년부터 도내 콘텐츠산업 실태 파악과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매년 경기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를 해왔다. 올해 8월에는 이 조사가 통계청이 인증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도 전체 콘텐츠기업 20,287개 중 출판, 음악,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화, 방송, 광고,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 11개 분야 2,3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조사에서 11개 분야의 제작업체 현황은 물론 지역서점, 만화카페, 노래연습장 등 콘텐츠 유통업까지 경기도 콘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츠산업 전반 현황을 담았다. 세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도 기준 경기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조 9,852억 원으로 출판이 5조 9,777억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4조 619억 원,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3조 9,72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 산업은 8,112억 원으로 1조를 넘지 못했다.

이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출판업은 경기 북부권역과 고양시가 각각 4조 4,404억 원, 5,267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매출액의 82.8%를 차지했다. 게임 산업은 성남시가 3조 5,405억 원의 매출로도 전체 게임 매출 4조 619억 원의 87.2%를 차지했다.

경기도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는 총 7

만 5,122명이었으며 출판산업이 4만 2,231명으로 가장 많고, 게임 산업 1만 9,538명,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산업(예를 들면 네이버, 다우기술, SK플래닛, 아프리카TV 등) 1만 6,808명, 음악 산업 1만 3,353명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콘텐츠기업의 총 수출액은 2조 6,092억 원이었으며,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산업이 1조 3,586억 원, 게임 산업이 1조 1,384억 원의 수출을 기록했다. 매출액 규모가 100억 이상인 콘텐츠 기업은 189개사로 총사업체 수의 0.93%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매출액이 14조 8,850억 원으로 전체의 70.9%로 나타났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내년 100회 전국체전은 서울서 열린다

서울시, 北 출전 추진… 평화체전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를 이끌어온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가 내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다.

서울시는 2019년 100회를 맞는 전국체전에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남북평화체전'을 만들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체육 100년 역사와 미래를 잇는 이번 대회를 '서울시민이 함께 만드는 평화, 화합, 감동체전'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대회 엠블럼과 마스코트 등을 발표했다.

전국체전은 1920년 서울 배재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에서 시작됐다. 일제강점 시기에 민족정신 함양 및 개체 역할을 한 전국체전은 중일전



쟁 발발과 조선체육회 강제해산 기간(1937~1944년), 한국전쟁 발생년도(1950년)를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됐다.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 산실 역할을 해 온 전국체전은 지방순회를 시작한 1957년부터는 지역체육 기반시설 확대와 균형발전에 기여했다.

내년 전국체전은 10월 4일부터 일주일 간 잠실 종합운동장 등 서울시내 69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17개 시·도 선수단과 18개 해외 동포 선수단 등 3만여명이 참여한다.

시는 일제강점기 남과 북이 함께하는 한민족 체육대회였던 전국체전이 100회를 맞이함에 따라 이번 대회에 북한의 참여를 독려해 한반도 화합의 길을 여는 평화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이하 전국장애인체전)도 같은 달 서울에서 열린다. 전국장애인체전은 내년 10월 15일부터 5일 동안 잠실 종합운동장 등 서울시내 32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선수단, 임원, 보호자 등 8500여명이 참가한다.

/김현정 기자 hjk1@

'조신한 여학생·듬직한 남학생'… 학교 내 성차별 여전

10명 중 8명 학창시절 성차별 경험

"여자는 공부 못해도 얼굴만 예쁘면 된다", "여자는 얼굴이 권력이고, 남자는 성적이 권력이다"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이 학교생활 중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31일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_학교편'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 여성가족재단은 '학생의 날(11월 3일)'을 앞두고 시민 5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738건의 의견을 접수 받았다.

응답자의 86.7%가 학교생활 중 성차별 언어나 행동을 겪었다고 답했다. 학교생활 중 가장 성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는 '교사의 말과 행동'이 34.5%로 가장 많았고, '교칙'(27.5%), '학생의 말과 행동'(11.2%), '교

과내용'(11.0%), '진로지도'(10.0%), '교훈, 급훈'(4.8%) 등이 뒤를 이었다.

시급히 바꿔어야 할 성차별 사례로는 ▲성별에 따라붙는 수식어 ▲학교에서 겪는 성차별적 말과 행동 ▲성편견이 담긴 교과 내용 ▲시대와 맞지 않는 낡은 교훈 등이 꼽혔다.

이밖에 학교에 엄마를 모시고 오라는 말이 아닌 보호자를 소환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장학관 취약계층·원거리 학생 우선 선발

투명성 높이고 전산시스템 구축

경기도장학관의 입사생 선발 방식이 시군 추천에서 직접 신청으로 바뀌고 취약계층과 원거리 거주 학생에 대한 정원도 늘어난다.

경기도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장학관 운영 개선 계획(안)을 마련, 내년도 입사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개선안은 시군별 배정 방식에 따라 취약계층과 원거리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성적 기준 미달 학생이 선발되는 등 입사생 선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도는 기존 시군 선발 방식을 장학관 직접 선발 방식으로 전환한다. 도는 올해까지 각 시·군당 3명을 일괄 배정한 후 시군이 추천할 인원을 대상으로 입사생을 선발했다. 이러다보니 일부 시군은 신청만 하면 되거나, 일부 시군은 추첨을 할 만큼 신청자가 많은 등 학생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원거리 통학생의 입사정원을 30%에서 45%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 한정했던 기준을 한예종 등 예술분야 특수대학까지 확대해 입사신청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사생 선발 관리와 조직 인력 회계 분야 통합 전산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경기도장학관은 4개동 197실에 384명이 입사해 생활하고 있으며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하고 있다.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학생에게는 5~10점 규모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선발 기준에서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30%에서 50%로 늘렸다.

또 ▲원거리 통학생의 입사정원을 30%에서 45%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 한정했던 기준을 한예종 등 예술분야 특수대학까지 확대해 입사신청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학생의 경우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우선 선발을 하고 차상위

/경기=김승열 기자

경기도, 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 집중점검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점검'과 연계, 31개 시군과 함께 다음달 2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67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으로 분류된 전국 2,000개소 중 경기지역에 해당하는 667개소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 및 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비용 및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 사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복지부 점검방침에 따라 지난 상반기와는 달리 31개 시·군 간 교차 점검을 합법적·합리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으로 분류된 전국 2,000개소 중 경기지역에 해당하는 667개소다.

/경기=김승열 기자



소방안전 캠페인 모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 화재 사망 절반이 겨울… 화재 예방 홍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안전대책 실시

최근 3년간 화재피해 사망자는 총 117명이며, 겨울철인 11~2월 사이에 56명(48%)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겨울철 화재 중 자동차 화재는 473건(7.6%), 음식점 화재는 710건(11.5%)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안전사용 캠페인을 펼친다. 차량용 소화기(ABC급)와 음식점 등 영업용 주방에 주방용(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지도·홍보할 방침이다.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화재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쪽방, 건축 공사장, 요양원 등 피난약자시설, 화재경계지구 등 화재 취약대상 5곳에서 매주 수요일 '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을 운영한다. 안전메시지는 각 소방서 SNS를 통해 관계자에게 전송된다.

/김현정 기자